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의 타당도 및 변별력에 관한 연구

김정기

강연욱

최명식

포항공과 대학교
교양학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포항공과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본 연구는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가 한국 대학생들의 부적응 여부를 진단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를 334명의 대학생들에게 실시한 결과,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의 평균 점수는 13.45(SD=6.68)이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의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한 요인분석 결과, 이 척도가 "자신감의 상실," "건강상태," "주의집중 곤란," "양심/반사회적 성향"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가 대학생들의 부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진단하는 도구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가 Beck 우울증 척도(BDI)와도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가 대학생들의 정서적 부적응을 잘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대학의 학생생활 연구소에서 3회 이상 상담을 받은 내담자 집단의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 점수가 정상인 집단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판별분석에서 정상인 집단과 내담자 집단의 정확분류율이 77.7%로 나타나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의 변별력이 높음을 보여 주었다.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의 타당도와 변별력을 입증한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가 31 문항의 검사로 비교적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 등에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대사회에서 적응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불안과 스트레스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대학생 집단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대학생들은 고교시절의 타율적 생활에서 갑자기 맞이하는 자율적인 생활로의 전환에서 오는 어려움을 비롯한 청년기 특유의 문제점들과 함께 경쟁의 심화에 따른 부담감 등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스트레스가 다양한 심

리적 및 신체적 질환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Weiten & Lloyd, 1994). 실제로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증상들과 함께 위장장애와 두통 등의 신체적인 증상들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매년 1-2 차례에 걸쳐서 학생들의 대학생활 여러 분야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는데, 이와 같은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파악하고 보다 나은 적응을 위한 방법 및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적응 및 부적응 여부를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을 유도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학생들의 보다 나은 적응을 위한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부적응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정도구들이 사용되어왔다. 이와 같은 검사도구들로는 일반인들에게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나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에서부터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Baker & Siryk, 1986)와 같이 특별히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개발된 여러 검사들(Hoffman, 1984; Wilderman, 1984)을 들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부적응의 진단 및 측정에 있어서 가장 널리 그리고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MMPI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중 일부는 대학생들의 적응진단을 위해 MMPI의 일부 문항들로 이루어진 특정척도들(Kleinmuntz, 1961; Thelen, 1969; Hoewischer, 1973)을 개발하게 되었고, Mt 척도(College Maladjustment Scale, Kleinmuntz, 1961)는 그 중의 하나이다.

Mt 척도는 미국 대학 상담소에서 적응상의 문제로 3회 이상 상담을 받은 대학생 집단의 반응과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대학생 집단의 반응을 대조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MMPI 초판에서는 이 Mt 척도의 문항수가 43개였으나, MMPI-2가 제작되면서 2개의 문항이 제외되어 현재는 41문항으로 되어있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현재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일반적으로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효율성을 보이고, 어떤 과업을 끝내지 못하고 미루는 경향이 있으며 삶에 대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신체화(somatization)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이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경우는, 정서

적으로 보다 잘 적응하고 있으며, 양심적이고 삶에 대해 낙관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Butcher, 1990; Graham, 1990). 한편, 이 척도는 미래의 어떤 정서적 문제의 발생을 예언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문제여부 및 심각도를 감지하는데 더 적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leinmuntz, 1961; Wilderman, 1984).

국내의 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강연옥, 이민희, 1995)에서 Mt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Mt 척도가 “자신감의 상실과 주의집중의 곤란,” “신체적 건강과 기분상태,” “정서적 통제,” “불안, 긴장,” “양심 또는 반사회적 성향”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41문항으로 이루어진 Mt 척도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이중 의미 있는 문항들만을 선정한 후 이를 원래의 Mt 척도와 구분하여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로 명명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하였으며, Beck 우울증척도 및 학점 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정상인 집단과 학생생활연구소에서 3회 이상 상담을 받은 학생들로 이루어진 내담자 집단의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 점수를 비교하고, 판별분석을 통해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의 변별력을 확인해 보았으며,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에 대한 활용성 및 추후 연구에 관해 논의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내용 및 절차

정상인 집단: 1997년 2학기 현재 포항공과 대학교 학부 재학생(1학년-4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11월 10일부터 약 10일간에 걸쳐서 다양한 학년 및 학과 학생들이 수강하는 교양과목(심리학개론 외 5개 과목) 수강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되

었다. 총 5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이중 334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는데(회수율 66.8%), 이는 포항공과 대학교 학부 전체 학생 수 1200명의 28%에 해당한다. 본 조사에 응한 334명의 학생 중 남학생은 297명(88.9%), 여학생은 35명(10.5%)이었으며 2명(0.6%)은 성별 문항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포항공과 대학교 학부 재학생(1997학년도 2학기 현재)중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각각 88.6%와 11.4%로서, 본 조사의 응답자중 남/여 학생의 비율과 매우 유사하다.

정상인 집단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는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 Beck 우울증척도(이하 BDI로 칭함)와 함께 학생들의 성별, 군복무여부 및 지난 학기 학점 등에 관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내담자 집단: 1995년 9월부터 1998년 4월까지 포항공과 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에서 3회 이상 상담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상담초기에 MMPI검사를 받은 33명(남학생 26명, 여학생 7명)을 선정하였다. 내담자 집단에는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상담초기에 실시했던 MMPI검사 답안지로부터 Mt 척도에 포함되는 41문항들만을 선별하여 Mt 척도 점수를 산출하였고, 이 41문항들로부터 다시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에 포함되는 31문항을 골라서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각 내담자의 지난 학기(상담 진행중인 학기의 바로 전 학기)학점을 알아보았다.

조사 도구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 MMPI-2의 41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Mt 척도 문항들은 한국판 MMPI(1989년도 개정판)에 포함된 같은 내용의 문항들을 찾아서 그대로 사용하였다(강연옥, 이민희, 1995; 김정기, 김동민, 1994). 한편, Mt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이 .30미만인 문항들을 제외한 31개 문항들로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를 구성하였다(부록 1 참조).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31문항) 및 Mt 척도(41문항)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능한 점수는 0점에서 31점(대학생활 부적응 척도) 또는 41점(Mt 척도)까지이다.

Beck 우울증 척도(BDI): 정서적 적응의 중요한 측면인 우울증상의 측정을 위해 BDI를 실시하였다.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Beck, Ward, Mendelson, Mock & Erbaugh, 1961)는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검사로서, 각 문항에 기술되어 있는 4개의 진술문 중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 송종용(1991)에 의해 번안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BDI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9였다.

결 과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 점수의 분포 및 신뢰도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31문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능한 점수는 0점에서 31점까지이다. 334명의 정상인 집단 학생들의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31문항) 점수는 0점부터 30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는 13.45(SD=6.68)이었다. 남학생 평균은 13.29(SD=6.70), 여학생 평균은 14.77(SD=6.53)로 나타났으며,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t=-1.24$, ns).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77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우선, Mt 척도(41문항)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의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여 요인분석하였다. 고유치(eigenvalue)가 1.5이상인 5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이 5개 요인은 총분산의 35.8%를 설명하였다. 직각회전(varimax rotation) 후에 5개 요인의 최종 고유치값은 각각 7.03, 1.36, 1.15, 1.11, .85였으며, 각 요인은 총분산의 17.1%, 3.3%, 2.8%, 2.7%, 2.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총분산의 28%가 이 5개 요인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직각요인회전 후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과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을 살펴 본 후,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인 31문항들을 선정하여 이를 Mt 척도(41문항)와 구분하기 위해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31문항)라고 명명하였다(부록 1 참조).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31문항)에 대해 다시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의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고유치(eigenvalue)가 1.5이상인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직각회전(varimax rotation) 후에 4개 요인의 최종 고유치값은 각각 6.46, 1.28, 1.05, .94였으며, 각 요인은 총분산의 20.8%, 4.1%, 3.5%, 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총분산의 31.5%가 이 4개 요인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직각요인회전 후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과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다음과 같다(표 1참조). 아울러 각 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다음과 같다: .78(요인 1), .60(요인 2), .78(요인 3), .71(요인 4).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와 BDI, 학점 등과의 상관관계

정상인 집단의 BDI점수의 평균은 8.21(SD=7.39)이었고,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는 BDI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71$, $p<.001$). 그러나,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 점수와 학점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인 집단의 군복무여부에 따른 학점을 비교해보면

군복무한 학생이 군복무를 하지 않은 학생보다 학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t=5.90$, $p<.001$). 그러나 군복무여부에 따른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t=-1.76$, ns). 또한,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 점수는 흡연량 및 음주량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분석

내담자 집단의 경우,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 점수의 전체 평균은 18.39(SD=6.76)이었고, 남학생의 평균은 18.08(SD=7.00), 여학생의 평균은 19.57(SD=6.13)이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t=-.51$, ns). 한편, 내담자 집단의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 점수는 정상인 집단의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 점수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01$, $p<.001$).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가 정상인 집단과 내담자 집단을 얼마나 잘 변별해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두 집단간의 구분이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별분석에서 일차판별함수 적용에 의한 정확분류율은 77.7%였다(표 2참조).

요약 및 논의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31문항)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이 척도가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에는 “정말 자신이 없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한번 실망하면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것을 떨쳐 버릴 수 없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서 “자신감의 상실”을 측정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나는 늘 즐겁다”, “나의 일상생

표 1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의 요인구조

척도 문항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10. 정말 자신이 없다.	.57	-.17	.34	-.12
21. 산다는 것이 나에게는 긴장의 연속이다.	.46	-.16	.13	.11
12.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46	-.06	.21	.10
27. 한 번 실망하면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	.45	-.16	.12	.11
15. 나는 정말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44	-.27	.29	.02
23. 나는 사람들에게 화를 잘 낸다.	.44	-.14	-.01	-.06
25. 나는 일들을 어렵게 보는 경향이 있다.	.43	-.08	.18	.16
28. 나는 잘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43	-.03	.20	-.07
19. 남들보다 신경질을 더 부리지 않는다.	-.42	.17	.03	.08
5. 일을 할 때 굉장히 긴장된다.	.41	-.01	-.01	.19
18. 너무 안절부절못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할 때가 있다.	.40	-.12	.25	.11
26.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겨낼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	.37	-.27	.30	.20
7. 업무를 못 내서 며칠,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일을 못하는 때가 있다.	.34	-.21	.21	.11
30. 내가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34	-.34	.16	-.01
31.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잘 잊어버려서 괴롭다.	.31	-.02	.19	.14
9. 요즘은 훌륭한 사람이 되려는 희망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31	-.30	.27	.03
13. 나는 늘 즐겁다.	-.20	.62	-.01	-.12
3. 나의 일상생활은 재미있는 일들로 가득 차있다.	-.23	.53	-.10	-.13
17. 나는 쉽게 지치지 않는다.	-.05	.52	-.18	-.07
8. 지금의 내 판단력은 어느 때보다도 좋다.	-.14	.49	-.14	.03
16. 지금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다.	.03	.48	-.08	-.05
4. 나는 거의 전과 다름없이 일을 할 수 있다.	-.23	.37	-.31	.02
1. 식욕이 좋다.	-.06	.37	.01	.11
2. 아침에 일어나면 대개 기분이 상쾌하고 몸이 거뜨하다	-.12	.35	-.19	-.01
29. 늘 피로를 느낀다.	.27	-.34	.25	.06
6.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다.	.10	-.27	.73	.02
22.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가 없다.	.20	-.24	.70	.08
24. 나는 남들보다 정신을 집중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28	-.17	.64	.05
20.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힘들다.	.37	-.01	.42	.05
11. 사람들은 대개 잘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라도 할 것으로 생각한다.	.16	-.06	.09	.69
14. 사람들은 이득이 된다면 다소 옳지 못한 수단도 쓸 것이다.	.04	-.02	.02	.68

표 2
판별분석결과

Fcn	Eigenvalue	Pct(%) of Variance	Cum Pct	Canonical Corr	After Fcn	Wilks' Lambda	Chi-square	df	Sig
1*	.2313	100.00	100.00	.4334	0	.812134	70.022	31	.0001

(일차판별함수 적용에 의한 판별분석)

실제집단	사례수	분류된 집단	
		정상인집단	내담자집단
정상인집단	321*	250(77.9%)	71(22.1%)
내담자집단	33	8(24.2%)	25(75.8%)
정확분류율		77.7%	

활은 재미있는 일들로 가득 차있다”, “나는 쉽게 지치지 않는다”와 같은 심리적 건강 상태에 관한 문항들과 “지금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대개 기분이 상쾌하고 몸이 거뜨하다”, “식욕이 좋다”와 같은 신체적 건강 상태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서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가 심리적 건강 상태와 함께 신체적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다”, “나는 남들보다 정신을 집중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일에 몰두할 수가 없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힘들다”의 네 문항으로 구성된 세 번째 요인은 “주의집중 곤란”이라고 명확히 정의할 수 있다.

“양심/반사회적 성향”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네 번째 요인은 “사람들은 대개 잘 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라도 할 것으로 생각한다”와 “사람들은 이득이 된다면 다소 옳지 못한 수단도 쓸 것이다”의 두 문항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가 자신감 상실 및 주의집중 곤란과 같은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의 측면, 그리고 양심/반사회적 성향과 같은 사회도덕적 측면 등 비교적 다양한 수준에서

의 적응을 측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네 요인이 설명하는 전체 설명변량이 총분산의 31.5%밖에 되지 못하며, 이는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가 대학생들의 부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진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Mt 척도를 이용한 선행 연구(강연옥, 이민희, 1995)에서 Mt 척도가 대학생활적응 질문지(Baker & Siryk, 1986)의 전체적응 점수 뿐만 아니라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적-정서적 적응, 학교에 대한 애착의 모든 하위척도들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와 학업적 적응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학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가 BDI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가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부적응을 잘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상담을 3회 이상 받은 내담자 집단의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 점수가 정상인 집단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서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가 부적응을 측정하는 검사임을 추가로 입증하였다. 또한 판별분석에서 정상인 집단과 내담자 집단의 정확

분류율이 77.7%로 나타나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의 변별력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에 대학생활 부적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닌 검사도 구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짧은 시간 내에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는 31개 문항의 검사로 대학생들의 부적응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음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가 대단위로 실시되는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 등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대학별 또는 남녀별로 각각 다른 규준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적응과 부적응을 구별하는 절단 점수(cut-off score)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대학교 및 단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31문항)를 포항공과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정상인 집단에 실시한 결과, 여학생들의 평균점수(14.77)가 남학생들의 평균점수(13.29)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기존의 Mt 척도(41문항)를 이용한 선행 연구들(Kleinmuntz, 1960; Wilderman, 1984; 김정기 & 김동민, 1994; 강연옥 & 이민희, 1995)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본문에서 밝혔듯이,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는 본 연구자들이 기존의 Mt 척도에서 요인분석 실시 후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들만 선정하여 새로이 구성한 것으로서, 기존의 Mt 척도를 이용한 다른 연구결과들과 비교하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와 Mt 척도에서의 남학생/여학생 간 차이에 있어서의 다른 결과가 두 척도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본 연구의 대상인 포항공과 대학교에서의 여학생 비율이 너무 낮아서인지, 혹은 포항공과 대학교 여학생들의 특수성인지는 확실치 않으며, 이를 밝힐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역시 포항공과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정상인 집단에 실시한 Mt 척도(41문항)의 평균 점수(18.29)는 미국 대학생들의 평균 점수(13.97,

Wilderman, 1984: 6.78, Kleinmuntz, 1960)와 비교할 때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수는 포항공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4년 전에 수행된 선행 연구에서의 평균 점수(20.26 : 김정기 & 김동민, 1994)와 비슷하고, 국내 다른 대학교 학생들 대상의 선행 연구에서의 평균 점수(21.23, 강연옥 & 이민희, 1995)와도 유사하다. 한편 국내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간의 Mt 척도 점수의 차이가 시대적인 차이 또는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두 요인 모두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시대적인 차이가 주요 요인의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의 연구에서 1960년의 연구 결과(평균점수 6.78)와 1984년의 연구 결과(평균점수 13.97)간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강연옥, 이민희(1995). 대학생활 부적응(Mt)척도의 타당도 및 유용성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20, 1-13. 충북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 김정기, 김동민(1994). 포항공대생의 정신건강 및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학생활연구*, 8, 23-39. 포항공과 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 이영호, 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Baker, R. W., & Siryk, B. (1986). Exploratory Intervention with a scale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31-38.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571.
- Butcher, J. N. (1990). *MMPI-2 in psychological treat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utcher, J. N., Dahlstrom, W. G., Graham, J. R., Tellegen, A., & Kaemmer, B. (1989).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2). Manual for administration and scoring*.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raham, J. R. (1990). *MMPI-2 assessing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oewischer, H. E. (1973). A study of adolescent anxiety measured by selected scores of the MMPI utilized as a predictive factor in predetermining college dropouts. *Dissertation Abstracts*, 33(9A), 4834-4835.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Keinmuntz, B. (1960). Identification of maladjust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8, 279-280.
- Kleinmuntz, B. (1961). The college maladjustment scale (Mt): Norms and predictive validit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1, 1029-1033.
- Thelen, M. H. (1969). Repression-Sensitization: Its relation to adjustment and seeking psychotherapy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2), 161-165.
- Weiten, W., & Lloyd, M. A. (1994). *Psychology applied to modern life* (4th ed.). Brooks/Cole.
- Wilderman, J. F. (1984). *An investigation of the clinical utility of the College Maladjustment Sca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nt State University, Kent, OH.

부 록

부록 1. 대학생생활 부적응 척도의 문항 및 채점

- | | |
|--|-------|
| 1. 식욕이 좋다. | (F) |
| 2. 아침에 일어나면 대개 기분이 상쾌하고 몸이 거뜨하다. | (F) |
| 3. 나의 일상생활은 재미있는 일들로 가득 차있다. | (F) |
| 4. 나는 거의 전과 다름없이 일을 할 수 있다. | (F) |
| 5. 일을 할 때 굉장히 긴장된다. | (T) |
| 6.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다. | (T) |
| 7. 업무를 못내서 며칠,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일을 못하는 때가 있다. | (T) |
| 8. 지금의 내 판단력은 어느 때보다도 좋다. | (F) |
| 9. 요즘은 훌륭한 사람이 되려는 희망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 (T) |
| 10. 정말 자신이 없다. | (T) |
| 11. 사람들은 대개 잘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라도 할 것으로 생각한다. | (T) |
| 12.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 (T) |
| 13. 나는 늘 즐겁다. | (F) |
| 14. 사람들은 이득이 된다면 다소 옳지 못한 수단도 쓸 것이다. | (T) |
| 15. 나는 정말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 (T) |
| 16. 지금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다. | (F) |
| 17. 나는 쉽게 지치지 않는다. | (F) |
| 18. 너무 안절부절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할 때가 있다. | (T) |
| 19. 남들보다 신경질을 더 부리지 않는다. | (F) |
| 20.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힘들다. | (T) |
| 21. 산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긴장의 연속이다. | (T) |
| 22.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가 없다. | (T) |
| 23. 나는 사람들에게 화를 잘 낸다. | (T) |
| 24. 나는 남들보다 정신을 집중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 (T) |
| 25. 나는 일들을 어렵게 보는 경향이 있다. | (T) |
| 26.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겨낼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 | (T) |
| 27. 한 번 실망하면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것을 떨쳐 버릴 수 없다. | (T) |
| 28. 나는 잘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 (T) |
| 29. 늘 피로를 느낀다. | (T) |
| 30. 내가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 (T) |
| 31.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잘 잊어버려서 괴롭다. | (T) |

The College Maladjustment Scale: A Validity and Clinical Utility Study

Kim, Jung Ki

Kang, Yeon Wook

Choi, Myoung Sik

Division of General Education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 of Neurology
Samsung Medical Center

Student Counseling Center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present study explored the validity and the discriminability of the College Maladjustment scale in Korean college students. The College Maladjustment scale was administered to 334 college students. The mean of the scale was 13.45 (SD=6.68),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The validity of the College Maladjustment scale was investigated by the factor analysis, yielding 4 factors of "loss of self-confidence", "health condition", "concentration difficulty", and "anti-social tendency".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College Maladjustment scale and the BDI.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llege Maladjustment scale measures various aspects of mal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And, the College Maladjustment scale score of the counseled group (maladjusted students who had remained in counseling for three or more session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score of the normal group (adjusted, noncounseled students). Discriminant analysis also showed that the College Maladjustment Scale reliably distinguished between the counseled group and the normal group. We believe that as a valid test of college students' maladjustment, the 31-item College Maladjustment Scale can be conveniently used for testing a large number of students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